

목적: 국균성 부비동염의 CT 소견은 보고되어 있으나 다른 일측성 부비동 질환들과의 감별이 용이하지 않아 상악동벽의 비후 정도에 따른 감별점을 찾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수술로 확진된 15예의 국균성 부비동염에서 CT상 비후된 상악동의 전벽, 상벽, 외측벽의 두께를 측정한뒤 반대측의 정상 상악동벽의 두께와의 비율을 비교하였으며 osteomeatal unit의 확장, 석회화, 부비동 주위의 골 미란 등의 소견들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수술로 확진된 만성 일측성 부비동염 9예와 반전성 유두종 6예, 상악동 후비강용종 5예의 CT 소견을 같은 방법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결과: 국균성 부비동염 전예에서 상악동의 골벽비후가 나타났으며 반대측 정상 상악동벽과의 비교값은 전벽 1.4, 상벽 1.54, 외측벽 1.81로 외측벽에서 두드러졌다. 국균성 상악동염과 만성 일측성 상악동염 9예를 비교하였을때 상악동 전체의 비후는 통계적 의의가 없었으나 외측벽만을 비교하였을때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 = 0.000$). 반전성 유두종 6예, 상악동후비강용종 5예와의 비교에서도 유의하게 국균성 상악동염의 골벽비후가 심하였다. 국균성 부비동염, 만성 일측성 상악동염, 반전성 유두종, 상악동 후비강용종 전예의 외측벽비후에 의한 비교값이 1.5배 이상 비후되었던 것은 11예였으며 그 중 10예(90.9%)가 국균성 부비동염이었다. 부비동의 석회화는 11예에서 관찰되었으며 osteomeatal unit의 확장이 보인 12예는 구상돌기의 압박과 미세한 골 미란이 전예에서 관찰되었다. 그러나 다른 부분의 골미란은 없었다. 반전성 유두종중 2예에서 osteomeatal unit 확장이 있었으며 이들에서 구상돌기의 압박과 미세한 골미란이 관찰되었다. 상악동 후비강용종의 5예중 1예만이 osteomeatal unit의 확장을 보였다. 반전성 유두종과 상악동 후비강용종에서 석회화는 보이지 않았다.

결론: 국균성 부비동염에서 관찰되는 상악동벽 비후는 특히 외측벽에 가장 심하며 이 소견은 기존의 CT 소견인 osteomeatal unit의 확장, 골미란, 석회화와 함께 만성 일측성 상악동염, 반전성 유두종, 상악동 후비강용종등과 감별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상악동의 편평세포암종에 관한 임상적 고찰

원자력병원 이비인후-두경부외과
이승호 · 심윤상 · 오경균 · 이용식

저자들은 1987년부터 1995년까지 원자력병원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여 상악동의 편평세포암종으로 진단받은 64례를 후향적으로 검토하였다.

남자 47례, 여자 17례이었다. 평균 연령은 55.8세이고, 50대가 32례, 60대가 18례로 대부분이었다. 증상으로는 협부종창이 32례로 가장 많았고, 비폐색 21례, 두통 18례, 비출혈 13례의 순이었다. 방사선조사만을 시행한 경우가 24례, 방사선조사와 동맥내 함양제 주입요법을 시행한 경우가 2례, 부분 적출술후 방사선조사를 시행한 경우가 14례, 전적출술후 방사선조사를 시행한 경우가 24례이었고, 15례에서는 안구적출술을 동반하였다. AJCC(1992) 분류법에 의한 임상적 병기분류에서, 초치료로 수술을 시행한 환자의 T stage는 T2 4/38례(10.5%), T3 10/38례(26.4%), T4 24/38례(63.1%)이었고, 초치료로 방사선조사를 받은 환자의 T stage는 T3 4/26례(15.4%), T4 22/26례(84.6%)이었다. 총 64례중 5례에서 경부전이 있었고, 원격전이는 없었다. 재발한 경우는 총 46례로, 국소재발이 44례이었고, 이중 4례에서 경부전이가 동반되었으며, 경부전이만 있는 경우 1례, 원격전이만 있는 경우가 1례이었다. 수술을 시행한 38례중 24례가 재발하였으며, 원발 부위 재발별로는 상악동 후연 8례, 안와주위 7례, 두개저부 5례, 구개 3례, 피부침범이 1례순이었다. 방사선조사를 시행한 26례중 22례에서 재발하였으며, 원발부위 재발 20례, 경부전이만 있는 경우 1례, 원격전이만 있는 경우가 1례이었다.

두경부영역에서의 선양낭성암종

원자력병원 이비인후 - 두경부외과
박윤영 · 심운상 · 오경균 · 이용식

저자들은 1986년 1월부터 1995년 12월까지 10년간 원자력병원 이비인후 - 두경부외과에서 병리조직학으로 진단되어 치료를 받은 54례의 선양낭성암종에 대해 분석하였다. 남자가 27례, 여자가 27례로 남녀비는 1:1이었고 평균연령은 47.7세였다. 발생부위별로는 주타액선에 19례(35.2%), 소타액선에 35례(64.8%)로 소타액선에 많았다. 주타액선에서는 악하선에 13례, 이하선에 4례, 설하선에 2례였고, 소타액선에서는 상악동, 접형동 및 비강 내에 16례, 구강에 12례, 구개인두에 4례, 기관, 귀, 비인강에 각가 1례의 순이었다. 임상적 병기는 1기가 11례(20.4%), 2기가 18례(33.3%), 3기가 10례(18.5%), 4기가 15례(27.8%)였다. 초치료는 수술만 시행한 경우가 12례, 수술과 술후 방사선치료를 시행한 경우가 27례, 방사선치료만 시행한 경우가 12례였고, 진단시 원격전이가 있었던 4례 중 3례에서 항암화학요법이 시행되었다. 치료 후 재발 양상은 24례에서 발견되었고, 국소재발이 11례(45.8%), 원격전이가 7례(29.2%), 국소재발과 원격전이가 같이 있었던 경우가 6례(25.0%)였다. 17례의 원격전이 중에서 폐전이가 10례(58.8%)로 가장 많았고 골전이가 4례, 폐전이와 골전이가 같이 있었던 경우가 1례였으며, 폐전이와 간전이가 같이 있었던 경우와 뇌전이도 각각 1례였다.

6

이하선 종양

원자력병원 이비인후 - 두경부외과
박석진 · 심운상 · 오경균 · 이용식 · 김승태

이하선종양은 전 타액선종양의 75~80%를 차지하는 종양으로 다양한 조직병리학적 소견, 안면 신경과의 연관성 및 타 종양과의 생물학적 특성이 틀린 점 등이 특징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저자들은 1986년부터 1995년까지 10년간 원자력병원 이비인후 - 두경부외과에서 조직병리학적으

로 하여 임상적 양상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총 119례중 양성종양은 71례, 악성종양은 48례로 양성종양이 59.7%를 점유했으며, 환자의 연령분포는 12세부터 75세까지였다(평균 연령 45.2세). 남녀비는 1:1.1 이었으나, 각 성별에서 악성종양의 빈도는 남자에서 51.0%, 여자에서 30.6%로 남자에서 악성종양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조직병리학적 분류를 보면, 양성종양에서는 양성혼합종 60례(84.5%), Warthin 종양 4례(5.6%)순이었으며, 악성종양에서는 점액표피양암종 17례(35.4%), 선양낭포암종 9례(18.8%), 악성혼합종 7례(14.6%), 선암종 6례(12.5%)의 순이었다. 치료는 수술적 절제를 원칙으로 종양의 위치에 따라 표재엽절제술, 전엽절제술 및 경부청소술 등을 시행하였으며, 악성종양의 경우 21례에서 술후 방사선치료를 병행하였다.

7

두개저에 발생한 동맥류성 골낭 1례

원자력병원 이비인후 - 두경부외과
이용식 · 박윤영

보통의 동맥류성 골낭은, 골지주나 골성조직 그리고 골파괴성 거대세포를 함유한 결합조직에 의해 구별되며, 혈액이 차 있는 다양한 크기의 공간들로 이루어진 확장성 골용해성 병변이다. 이에 비해 고형의 동맥류성 골낭은 섬유모세포성, 골파괴성, 골형성성, 동맥류성, 섬유점액성 요소를 가진 색다른 고형성 골병변이다. 고형의 동맥류성 골낭은 종양 유사 병변이며 손상에 대한 특수한 골작용으로 생각된다. 소파술로 치료가 되며 예후는 좋은 편이다.

저자들은 두개저에 발생한 동맥류성 골낭 1례를 치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환자는 29세 여자환자로 4년 전부터 서서히 발생한 좌측 안면신경마비, 난청 및 복시를 주소로 내원하였다. 이학적 검사상 제 6, 7, 11, 12번 뇌신경의 마비소견이 있었으며 전산화 단층 촬영상 소뇌 교각에서 제 1경추까지 내려가는 종괴소견을 보였다. 이에 두개저에 발생한 신경원성 종양을 의심하여 경추두골미로상부접근법에 의한 수술을 시행하였다. 조직검사상